

국산약재 물동량 부진 불구 하락세 경향 비수기인 한겨울보다 더한 경기불황 탓 식품용 수입약재 범람, 시세하락 더 부추겨

일년 중 가장 성수기라고 할 수 있는 3,4월. 으레 바쁘고 번잡해야 할 한약상이 골목들에선 매서운 꽃샘 추위보다 더한 냉기가 감돈다. “오히려 비수기인 한 겨울 보다도 못하다”는게 약전골목 상인들의 푸념 섞인 하소연.

사회 전반적인 경기부진 여파로 약전골목의 경기가 시들한데다 너도나도 경쟁하듯 들어오는 식품용 수입약재 덕(?)에 그나마 겨우 명맥을 유지해 가고 있는 국산 한약재 시세마저도 전반적인 하락세 경향을 보이고 있어 우려의 소리가 높다.

수입약재의 반입 증가로 갈수록 국산 생약의 재배면적과 생산량은 갈수록 감소 추세인 반면 식품으로 반입된 수입 한약재를 국산과 혼용 유통 행위는 시장 상인들 사이에서는 이미 보편화된 현상. 그 중 식품용 반입량이 많은 품목의 경우는 그래서 국산 시세 하락 폭도 큰 반면 당귀, 강황, 독활, 후박, 치자 등 수입산과 종이 다르거나 육안으로 구별이 가능한 품목은 다른 작물과 비교해 보합세 경향이거나 값이 다소 빠지더라도 그 폭이 그리 크지 않은 편이다.

건강 3월말 현재 경동약령시장 내에서 거래되는 토건강 근당(6백g 기준) 도매시세는 지난 연말 5천원 시세보다 다소 떨어진 4천6백원 선이다. 국산 건강 수확량 대폭 감소 영향으로, 물동량이

귀한 틈을 타 시세폭등을 기대하며 사재기해 놓은 장사꾼들이 시장경기 침체로 매매 부진하자 너도나도 물량을 풀고 있기 때문이다.

구기자 전반적인 경기불황 속에서 시세 하락세. 지난 1월 근당(6백g 기준) 1만 6천5백원 선까지 오름세를 보이던 구기자가 3월 들어서면서 시세가 빠지기 시작, 3월말 현재 경동약령시장 내에서 거래되는 구기자 근당 도매시세는 1만3천원 선이다. 그 중에서도 청양산은 1만2천5백원, 진도산은 1만3천5백원 대에 거래되고 있다. 경기부진한데다 청양산과 흡사한 수입 구기자가 식품으로 반입돼 국산시세의 10분의 1 수준인 근당 1천2백~3천5백원 선에 거래되고 있어 국산 구기자 시세 하락을 더욱 부추기고 있다는 분석이다.

당귀 3월말 현재 경동약령시장 내에서 거래되는 토당귀 근당(6백g 기준) 도매시세는 6천5백원(통), 7천5백원(절) 선으로 보합세. 일부 장사꾼들의 사재기 영향으로 일시적 상승세를 타던 당귀 값이 최근들어 다소 주춤한 상황. 제기동 소재 당귀 전문업체인 H유통의 부도가 적지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 추정하여 시세는 다소 빠질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국산 토당귀와 중국산 당귀는 종이 완전히 다른 식물인데다 토당

귀의 경우는 중국산과 확연히 구별되므로 수입산과의 혼용 유통이 불가능한 품목. 다른 여타의 국산 품목에 비해 당귀시세가 보합세를 유지할 수 있는 이유 중 하나다.

더덕 물동량 귀하다. 굵고 좋은 상품은 대부분 생것 상태로 출하돼 kg당 7천5백원 선에 식품으로 유통되고 있으며 그중 잔 매지만 약재용으로 건조되고 있는 추세여서 물량 그리 많지 않은 상황. 시세도 상보합세다. 지난해 이맘때 근당 3천2백원 선이던 더덕이 3월말 현재 근당 4천5백~4천8백원 선에 도매 거래 되고 있다. 수입산이 대량 반입, 근당 2천2백원 선에 유통되고 있기는 하지만 국산과 비교적 구별이 용이한 품목이어서 국산 소비량은 꾸준한 편이다. 물동량 귀해 시세는 당분간 상보합세 유지할 듯.

맥문동 시세 폭락. 지난 연말 근당(6백g 기준) 9천~1만1천원(거심), 7천~8천원 선이던 맥문동 시세가 올 초부터 조금씩 빠지기 시작하더니 3월말 현재 청양산이 근당 6천5백원(거심), 4천5백원(막막) 선에 도매 거래 되고 있으며 지금부터 햇것이 조금씩 비치기 시작하는 밀양산은 7천5백원(거심), 5천원(막막) 선에 출하되고 있다. 평균 3천원 폭으로 시세 폭락한 것. 이같은 맥문동의 갑작스런 폭락세는 경기침체로 인한 거래 부진 외에도 식품원료로 반입된 수입 맥문동의 시장 점유율이 높은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국산 맥문동(상품)과 거의 구별이 어려운 수입산 맥문동은 근당 2천4백~2천6백원 선에 거래되고 있다고. 지난해 재배면적 증가로 올 햇것 출하량은 다소 늘어날 전망이다.

백지 3월말 현재 경동약령시장 내에서 거래되는 백지 근당(6백g 기준) 도매시세는 3천~3천5백원(절품) 선으로 지난 연말 4천5백원 선보다 대폭 하락세다. 지난해 말 수입된 쿼터품 50톤이 들어오면서 함께 밀 반입된 것으로 추정되는 약 20여톤 물량까지 가세, 국산과 혼용 유통되면서 국산 백지 시세도

폭락세 보이고 있는 것. 거래 부진한 까닭에 시세는 당분간 약보합세 이룰 전망이다. 산지에서는 “귀한 백지 종자가 남아돌아도 백지를 재배하려는 농가가 없을 정도”라며 한숨이다.

백출 3월말 현재 경동약령시장 내에서 거래되는 백출 근당(6백g 기준) 도매시세는 상품이 9천5백원, 중품이 근당 9천원 선으로 지난 연말 시세인 1만~1만1천원 보다 1천원 폭으로 떨어졌다. 수입산 백출은 국산 시세의 5분의 1수준인 근당 2천8백원(특품), 2천2백원(상품) 선에 시중 유통되고 있어 국산 백출 매기는 거의 없는 상황이다.

산수유 지난해 품귀현상으로 근당 5,6만 원 선 까지 폭등했던 산수유 시세가 풍작으로 올 출하량이 예년비 대폭 증가함에 따라 국산 산수유 시세도 큰 폭으로 하락했다. 3월 말 현재 경동약령시장 내에서 거래되는 국산 산수유 근당(6백g 기준) 도매시세는 상품이 1만5백원, 그보다 못한 중품이 8천5백원 선이다. 국산 시세가 하한기를 형성하고 있는 탓에 수입 산수유 유통도 뜸한 상황. 시장경기가 어느 정도 정상화 될 경우, 물량이 많다고는 하나 수입산 유통이 거의 없어 국산 산수유 시세는 향후 다소 오름세 보일 것이라 전망도 나오고 있다.

작약 백작약 근당(6백g 기준) 도매시세는 의성산 상품이 5천5백원, 하품은 3천5백원 선에 거래되고 있으며 호남산도 근당 4천원 선으로 다소 하락세 보이고 있다. 식품용으로 반입되는 수입 작약이 국산과 흡사하게 가공돼 국산과 혼용 유통되는 바람에 국산 작약 시세가 기를 펴지 못하고 있는 상황. 작약은 가공방법에 따라 상품성이 좌우되는 민감한 품목중의 하나. 수입품에서도 역시 가공 방법에 따라 시세 차가 크다. 중국에서 직접 가공해 들여오는 수입산은 근당1천5백~1천8백원 선인데 비해 생것으로 들여와 국내에서 가공해 국산과 거의 흡사한 품질의 것은 근당 2천3백~3천원 선에 시중 거래되고 있다고.

오미자 경동약령시장 내에서 거래되는 오미자 근당(6백g 기준) 도매시세는 3월 말 현재 2만5천원 선으로 지난 연말 비 소폭 오름세. 예년비 지난해 오미자 생산량이 감소한데다 많은 물량이 이미 생것인 상태에서 식품회사 등지로 출하됨에 따라 약재용 오미자 물동량이 귀한 때문이다. 수입산 오미자 시세는 근당 3천~4천원 선으로 국산 시세의 5분의 1 수준. 값싼 수입산 오미자가 넘쳐나지만 국산을 고집하는 수요층도 꽤 있는 편이어서 상대적으로 물량이 부족한 국산 오미자 시세는 당분간 상보합세 이룰 전망이다.

천궁 근당(6백g 기준) 7, 8천원 선을 형성했던 일천궁 값이 거래부진 영향으로 다소 하락세 보이고 있다. 최근 지방 5일장에서는 실제 물건은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시세만 5천몇백원 까지 형성되기도 했다는 후문이다. 3월말 현재 경동약령시장 내에서 거래되는 일천궁 근당 도매시세는 6천5백원 선이나 거래는 부진한 상황. 최근 들어서는 수입 천궁이 생것으로 반입돼와 국내 일천궁 산지로 들어가 가공 유통되기도 한다는 후문이며 이는 국산 시세 하락 원인과도 무관치 않다는 지적이다.

택사 얼마남지 않은 햇것 출하기를 앞두고, 최근 장사꾼들의 작전에 의해 시세 떨어지고 있는 품목. 지난 연말 근당(6백g 기준) 4천8백원(통), 5천2백원(절) 선이던 택사가 3월 말 현재는 근당 4천2백원(통), 4천7백원(절) 선으로 소폭 내림세 경향을 띠고 있다. 물량이 그리 많지 않은 품목임에도 생산시기에는 작전세력에 의해 시세 떨어졌다가 다시 장사꾼들의 손에 의해 시세가 폭등되는 현상이 되풀이 됨으로서 피해를 보는 건 생산농민들이다.

황기 대황기는 품귀. 물량 구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시세도 꾸준한 상승세. 3월말 현재 경동약령시장 내에서 거래되는 근당(6백g 기준) 도매시세는 6년근 이상이 5만 원에도 물량이 없으며, 3년근 이상은 3만8천원 선으로 상보합세다. 반면 1년근 소황기 시세는 하락세. 지난 연말 9천원 선이던 소황기가 3월 말 현재 근당 8천원 선으로 떨어졌다. 국산과 거의 흡사한 수입 황기가 국산과 섞여 국산보다 낮은 시세에 유통되는 비율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문정희)

백두산 자생식물 연구 새 소득작목으로 개발

백두산에 자생하는 유용식물을 새로운 소득작목으로 개발하는 연구가 중국과 공동으로 추진된다.

강원도농업기술원 특화작목개발시험장은 경제적 가치가 높은 1,100여종의 백두산 자생식물을 중국 지린성 예벤 입업과학연구소와 공동 연구기로 합의했다.

특화작목개발시험장은 앞으로 3년동안 자원의 수집과 분류, 육종, 재배기술 확립, 기능성 검정, 가공품 개발 등을 맡고, 중국측은 자

원수집에 따른 현지 안내와 협조, 시험포장 제공 및 관리 등을 담당기로 했다.

도농업기술원은 산나물과 자생화훼 전문연구사 등 인력을 중국현지에 파견, 유용 자원 식물체의 종자 수집과 식물학적·농업적 이용가치와 재배 가능성을 집중 연구할 계획이다.

홍정기 장장은 “유용식물의 가능성을 점검해 다양한 가공상품으로 개발하는데 중점을 두고 연구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